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제332호 승격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水瑪瑙塔)의 국보(제 332호) 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7월 10일 정암사 경내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철규 국회의원, 전홍표 정선군의장, 월장사 주지 정념스님,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조계종 관계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수마노탑 국보승격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은 붓 그림 퍼포먼스, 국악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개최선언, 주민 축하 동영상 관람, 경과보고, 국보지정서 전달, 감사패 전달, 환영사, 축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기념 촬영, 수마노탑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7월 9일에는 고한읍 번영회(회장 한우영) 주관으로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을 자축하기 위해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마노탑 길놀이와 정암예술제가 열렸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식'에 참석한 정재숙 문화재청장(가운데)과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왼쪽), 최승준 정선군수

이날 예술제에는 고한 시가지에서 정암사까지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무궁화꽃예술단의 바라춤, 흑빛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동요합창, 통기타 동아리 공연, 아울예술단 해금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돼 지역주민들이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과 역사와 문화유산을 오롯이 간직한 고한읍 탄생을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6월 25일 문화재청이 국보 제332호로 승격·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4건의 국보 모전석탑을 보유하게 됐다. 모전석탑의 국보 지정은 지난 1977년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이후 43년 만이다.

정선군, 반세기 노력 결실...역사문화 도시로 재탄생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4만여 정선군민과 정암사, 정선군의 반세기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 탑은 1960년부터 1964년까지 현지 조사를 거친 후 1964년 9월 3일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다. 이후 2012년부터 국보 승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낭보를 받았다.

정선군은 군민, 정암사와 함께 2012~2017년 수마노탑의 가치 연구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4차례 열었고, 2018년 2월에는 정암사 수마노탑 종합학술자료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또 수마노탑의 역사적 고증을 위해 2014년 정암사 수마노탑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정암사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하는 등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확인하고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선군은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승격으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무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1천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오롯이 간직한 역사문화 도시로 재탄생했다. ♣



국보 제332호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